

대학가 소식



성신여대-하북과기대 한·중합작 의류디자인전공이 작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국제대학생패션 위크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뒷줄 정가운데)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대-중국 하북과기대 중 '국가급 일류학부' 선정

성신여대는 한·중합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국 하북과기대의 의류디자인학과가 중국 교육부에서 지난 달 24일 발표한 2019년 4년제 학사 전공의 '국가급 일류학부 전공'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류학부 전공 선정은 중국정부에서 세계적 일류대학 및 세계적 일류학과 육성을 목표로 중국 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및 학과를 선정하는 쌍일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하북과기대 의류디자인학과는 1988년 학생모집을 시작해 2013년 3월 중국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성신여대와 한·중합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7년 합작 프로젝트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7년 8월 양교의 학위를 받는 첫 졸업생이 탄생한 이후 그동안 1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하북과기대 의류디자인학과는 일류학부 전공 선정으로 향후 중국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양교의 국제인재 양성 목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

신·편입생, 선배와 '오리엔테이션'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Coming-선배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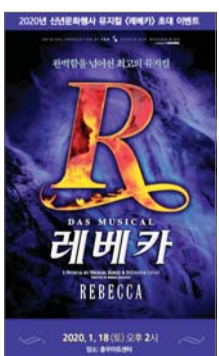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 경희인 3단계 프로그램' 중 2단계 프로그램으로 'Coming-선배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2020학년 1학기 입학 예정인 예비 신·편입생 및 재학생, 동문,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해린 입학·학생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학사 수강 및 학생 프로그램 안내 ▲ 축하공연 ▲ 학과(전공) 오리엔테이션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사이버대

뮤지컬 '레베카' 초대 이벤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신년을 맞아 신·편입생 지원자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 신년문화행사 뮤지컬 '레베카'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그동안 소프라노 조수미 초청 송년음악회, 발레 백조의 호수, 마타하리, 뮤지컬 맘마미아, 킵키부츠, 레미제라블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열어왔다. 올해는 세계적인 뮤지컬 레베카를 선보인다. /한용수 기자



원비 빼돌리면 징역형... 벌벌 떠는 원장들

'유치원 3법' 15개월 만에 통과

회계비리 적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등도 신설

유치원 원장이 원생 급식비를 덜 쓰고 남은 돈으로 명품백을 사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난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은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반대가 일었으나,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공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이번 회계비리까지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이뤄졌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이른바 '셀프징계'가 가능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치원 원장이 개인 출퇴근용 차량의 보험료를 내거나,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적발되도 해당 금액

회수와 경고 등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했다. 기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됐고, 법을 위반해 운영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가 공개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과 설비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성대 교수-강사 'AI·빅데이터'로 몽친다

교원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기술 역량 증진, 학제간 융합 도모 30여 개 융합 교과목 운영 계획도

한성대학교 교수와 강사 등 전체 교원이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시대 핵심 기술을 배운다. 교원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고 학제간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14일 한성대에 따르면, 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교원 대상 '교원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한성대 교원들의 핵심 ICT 기술 분야 역량 증진과 학제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융



한성대 학생들이 교내 상상파크에서 모션 트래킹(움직임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 시연을 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 빅데이터교육연구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R 기초 및 활용 교육' ▲ AI 교육연구센터의

'AI 기초 및 활용 교육' ▲ C&C School의 '3D 프린팅 활용 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성대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올해 30여개 융합 교과목을 운영할 예정

이다. 한성대 C&C School(창의융합교육원) 노광현 원장은 "2020학년도 C&C School은 전공·교양 영역에서의 30여 개의 융합 교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이번 교원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교원들의 학제간 융합을 이뤄, 2020학년도 융합 교과목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성대는 앞서 지난해 7월 대학 혁신을 위해 창의융합교육원을 신설했다. 창의융합교육원은 전공과 교양과정에서 학제간 창의융합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핵심 ICT 기술 분야 창의융합교육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11월 창의융합교육원 인프라 상상파크를 개관해 학생들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실습 장비, 3D 프린터 등 고가의 첨단 실습 기재를 활용하고 디자인씽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문송합니다"... 非전공 지원 인문계열 '최다'

구직자 55% "비전공 직무 지원" 인문계열 71% 1위... 공학 '최저'

구직자 절반 이상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직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14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구직자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2%는 '전공과 관련한 직무에만 지원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나머지 54.8%는 '비전공 직무에도 지원해왔다'고 답했다.

전공 계열별 비전공 직무에 지원한다는 응답은 인문계열

(71.4%)에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42.1%)은 가장 적었다. 또 경력직(47.4%)보다 신입직(61.9%)이 전공을 불문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컸다.

전공과 다른 직무에 지원한 이유로는 '전공 관련 일자리가 없기 때문'(51.3%)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은 인문계열이 6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계열(59.0%), 자연계열(56.5%), 교육계열(50.0%), 상경계열(42.6%), 공학계열(41.3%) 순이었다.

경력직의 경우 '전공 비관련 직무

로 경력을 쌓게 되서'(16.0%),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안 맞아서'(91.3%), '연봉과 같은 근로조건이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14.2%) 등을 비전공 직무 지원 이유로 들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전공에 따른 직무수요에 큰 격차 없이 우선적으로는 일자리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최근 직무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지원직무에서의 능력을 갖춘다면 타 전공이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큰 점을 기회로 삼아 합격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 회원 40만명 돌파 '홍행'

웅진씽크빅은 '놀이의 발견'이 구글플레이스토어 육아 어플리케이션 분야 1위를 달성하며, 국내 회원 수 4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웅진씽크빅이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론칭한 '놀이의 발견'은 아이들이 즐겁게 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한 자리에 모아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이다.

'놀이의 발견'은 구글플레이 선정 2019년을 빛낸 숨은 보석 앱을 수상의 영예와 함께, 평점 4.7점을 기록하며 출산·육아 앱 부문 선두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누적 회원 수 역시 지난해 7월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5개월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한용수 기자